

## 제3절 전통가옥의 구조와 특성\*

### 1. 주거문화의 배경

주생활 양식인 주거문화란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대응이다. 그래서 주거문화는 특유한 환경 조건에 따른 외부조건을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주생활 조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조건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체험이 축적되면서 무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중 일관된 주거유형을 만들어간다. 전통가옥은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의 선택과 적응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자연환경과의 대응관계가 중심이다. 순천지역의 전통가옥도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존속되어온 것이다.

순천은 한반도 남쪽 끝 전라남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한과 백제의 옛터로서 일찍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왔다. 『통국여지승람』에도 “산과 물이 기이하고 고와 세상에서 소강남이라 일컫는다.” 할 만큼 일찍부터 정주(定住)문화를 꽃피우기 좋은 환경조건을 갖추었다. 노령산맥에서 분기된 모후산·조계산 등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산들이 중첩되는 북서쪽 등의 산악이 7할 이상을 차지하며, 반면 남동쪽에는 순천평야와 해룡·별량면의 일부에 분지형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산간분지에서의 수답재배는 많은 노동력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곳곳에 취락을 형성토록 했지만, 소규모 영농으로 대가옥을 조영할 여력이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회신분에 따른 가사(家舍) 제한이 있었지만, 대토지를 소유한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영세 자영농 또는 소작농의 가옥은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개 3칸 막살이 초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1칸을 덧붙인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해안형 기후지역에 속한다. 연중 기온차가 적을 뿐 아니라, 남해안에 면하여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온난한 편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가 그렇듯이 위도상의 한서차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옥구조로서 온돌과 마루라는 2중 구조가 기본이 되어 주거문화를 발달시킨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중부 이북의 내륙지역과 달리 연평균 강우량도 많은 편이며, 많은 습기를 머금은 남해안과 직접 연결되는 등 지리적으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고온다습한 편이다. 따라서 가옥구조도 가급적 이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마루구조, 즉 안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발전되었다. 대부분의 남부형 민가와 같이 3칸, 또는 4칸 홑집의 유형이 표준인 것도 이러한 기후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

\* 제3절은 서치상(徐致祥) 집필임.

